

권오신의 현조(賢祖)실록 산책 기획특집 4

임란의병장 梅窩公과 천재문인 香塢公

매와공

향오공



글 권오신 (대중회 부회장, 칼럼니스트)



-신용지책(神勇之策)이란 평과 별명(別名) 얻었을 만큼 작전이 신출(新出)하고 한 마리 백호(白虎)가 전쟁터를 누비는 것처럼 용맹스럽게 보였다고 한다. 공군이 선봉을 맡았던 전투는 백전백승이었다.-

자는 명언(明彦), 호는 매와(梅窩), 휘(諱)는 권사악(權士謨, 1566-1612) 이시다.

의병장이시었던 매천공(梅軒公, 諱 士敏)과는 종항(從行)간이시니 첨정공(僉正公 諱 繼中)의 손자, 군자감정(贈軍實監正, 諱 德綱)공의 아들로 明宗 11년(1656, 丙辰年)경주 안강현(安康縣)에서 태어났다.

매와(梅窩) 권사악(權士謨)공 역시 사정(司正)공의 현손으로 경부병마절제사(慶州兵馬節制使)와 병조, 예조 정랑, 합천 영천군수를 지내신 귀봉(龜峯) 권덕린(權德麟)이 백부여서 어릴 적부터 귀봉(龜峯)공으로부터 학문과 예절을 배우고 익혔다.

백부(伯父, 큰 아버지)로부터 큰 인재로 인정받았다. 향시(鄕試)만 입격(及格)하고 벼슬길을 멀리하는 대신 학문을 닦는데 평생을 보냈다. 약관의 나이였음에도 스승이자 백부 귀봉(龜峯)공에 의해 추천됐던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의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선생(先生) 신도비(神道碑) 건립 주역을 맡으시는 등 유학(儒學)을 숭상하고 지행(知行)하는 선비의 길을 걸었다.

매와(梅窩)공은 임진년(1592)에 왜란(倭亂)이 일어나 동래성이 무너지고 경주부윤(慶州府尹)이 죽장에 숨는 것을 보고 그 즉시 붓을 던지고 창의(倡義)했으니 그 때 나이 37살, 임란(壬亂)이 일어났던 1592년 여름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빨랐던 경주 문천(蚊川)회맹에서 큰집 조카 응생(應生)과 여정(女精)공 등 86명과 함께 의병 대열에 합류했다.

경주 계연(鷄淵)전투는 문천회맹과 경주 읍성 탈환작전 앞 단계로 보인다.

경주읍성(慶州邑城)과 서천(西川)사이 넓은 둔치자리를 훈련장으로 썼던 경주의병은 계연(鷄淵)전투에서 매와(梅窩)공과 노헌(魯軒)공, 최집립, 손엽, 이불, 최계중과 이경연, 이한남, 전응충 등 울산 의병장이 합류한 의병진이 무려 3일 밤낮을 잠대같이 쏟아지는 비를 무릅쓰고 싸움을 벌였으며 여병

의 조종에 쓰러진 의병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나왔으나 계연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계연전투의 전승의 분위기가 문천회맹(蚊川會盟)을 성사 시켰다.

선조(宣祖) 25년 6월 9일 경주 월성(月城)에서 가진 문천회맹(蚊川會盟)에 조카 노환공, 유복을 갖 벗어난 권여정(權汝精)공과 함께 참가했다. 대구 팔공산(八公山)과 경상남도 화양산 회맹보다 앞섰던 문천회맹(蚊川會盟)에선 "집승의 피를 나누어 마시고 서약을 꼭 지킨다는 단심(丹心)을 위해 회맹록(會盟錄)을 작성하였다." <崔孝執著 慶州府의 壬辰抗爭史>

당시 문천(蚊川)회맹엔 경주, 울산, 영천, 연일, 장기, 흥해, 양산, 동래에서 86명의 의병장이 참여한 것을 보면 양반 평민은 물론 지역과 성씨(姓氏)를 가리지 않고 오직 왜구로부터 나라를 구한다는 일념으로 모였다.

매와공(梅窩公)과 노헌공(魯軒公), 권여정(權汝精)공 등 문천회맹에 참여한 의병장들이 지휘한 영남의병군은 그해 6월 17일 언양(彦陽)에서 경주로 이동 중인 왜병과 경주읍성(慶州邑城)에서 출동한 왜적들을 반월성(半月城, 신라공성이 있었던 자리)을 끼고 흐르는 남천(南川, 형산강지류)에서 조우(遭遇), 개전 이래 가장 큰 전투를 벌였다.

의병군은 반월성(半月城)과 경주남산(慶州南山) 허리를 끼고 흐르는 남천에서 두 진으로 나누어 활과 돌을 굴리는 작전으로 왜적의 본진을 깨뜨렸다. 남은 왜적들이 읍성으로 후퇴하고 운문산(雲門山)으로 도망쳤다.

매와공은 특히 임란이 일어났던 그해 6월 9일과 30일 2백여 명의 의병군을 이끌고 왜군(倭軍)이 배를 이용, 형산강 집안을 시도 하는 것을 보고 안강현 흥천과 현곡 금장대에서 전투를 벌여 총통 18문과 12자루의 병기까지 빼앗다.

매와공은 그해 7월초엔 왜군에 의해 무혈점령(4월 21일)된 경주성의 한을 뒤로하고 영천(永川) 추성에 진을 치고 영천성(永川城) 수복 작전을 펼친 신령의병장 권응주(權應珠)부대와 합류했다.

<영천성 탈환작전> 임진왜란이 발생한날로부터

104일째인 7월 27일 밤부터 벌인 영천성 탈환작전엔 매와공과 권사민(權士敏), 응생(應生), 그리고 죽림(竹林)공의 5세손이신 구사재공(九思齋公, 諱 復始) 등 경주 연일 흥해 의병장 등 인근 열읍에서 모인 의사(義士) 701명이 연합전선을 펴 혈투를 벌였다. 의병들의 끈질긴 공세에 밀린 가토 가요마사(加藤嘉正)는 대병력을 갖고도 대구 쪽으로 물러났다. 손시, 최진립 장군과 좌우로 호각세를 이룬 매와공과 권사민, 응생이 지휘하는 의병군들은 영천성을 공격, 왜군 주둔(駐屯)지에 불을 지르고 당시 잡혀 있었던 백성 1,900명을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는 등 임란사(壬亂史)에 기리 남을 공을 세웠다.

특히 매와공은 왜구와 싸울 때마다 선봉을 도맡았다.

날카로운 공격 형세에 당할 왜구가 없었다고 호계사기문(虎溪祠記文)에 적혀 있다.

화양산 전투에서 꼭재우 의병군의 좌현을 맡아서도 큰 공을 세워 훗날 사천현감을 제수 받는 군공(軍功)이 됐다.

특히 매와공은 의병장으로서의 보기 드물게 화왕산성에서 훈련원정(訓練院正, 의병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키는 책임자)으로 승진할 만큼 열정적인 리더였다.

1597년 3월 22일 정유재란에 앞서 결의를 다진 대구 팔공산(八公山) 회맹에도 참여 하셨다. 권여정(權汝精), 권응생(權應生), 권복시공(權復始公) 등 경주, 영천, 연일, 울산, 언양 등 영남 일대에서 창의한 의병 세력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회맹의장(會盟義將)이 208인이나 되었으니 그 기세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선조(宣祖) 25년 6월 20일 이의자, 이불, 윤흥명 의병장과 함께 공이 주도적(主導的)으로 펼친 경주 서악(西岳) 선도산(해발 380m) 야간 작전에서 왜적 130명의 수급을 했다. 이 전투에서 신용지책(神勇之策)이란 평과 별명(別名)을 얻었을 만큼 작전이 신출(新出)하고 한 마리 백호(白虎)가 전쟁터를 누비는 것처럼 용맹스럽게 보였다고 한다.

당시 경주부윤 윤인환은 장창 36자루를 의병들에게 상으로 내렸다. (다음호에 계속)

부호장공파종회 제66회 경로잔치 개최

부호장공파종회(副戶長公派宗會: 회장 권영건)는 5월 20일 오전 11시 안동시 어가골길(대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고문, 원로 회원, 족친, 부녀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6회 경로잔치를 개최하였다. 주최 측은 어제부터 비가 계속 내리기 시작하여 큰 걱정을 하였으나 경로잔치 당일에는 비가 그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하였다.



권태욱 사무국장의 사회로 식순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모소 및 파조위패 낭배, 상음례, 파종회장 인사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권영건 파종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농사철인데도 불구하고 원근거리에서 족친들이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한 후 "지난 2017년 5월 국립안동대 명예교수인 권영준 박사를 초청, 보학강좌로 '한국의 성씨'에 관한 강의를 하였지만 올해는 '안동이 본관인 성씨(姓氏)'에 관하여 강의를 하며 아울러 부녀회원이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군이 안동시로 통합되기 전 안동군 내의 8개 성씨는 풍산류(柳)씨, 풍산김(金)씨, 풍산홍(洪)씨, 풍산심(沈)씨, 예안(李)씨, 예안김(金)씨, 길안임(林)씨, 임하임(林)씨이다. 이들 23개 성씨가 사용하는 인구는 총 1백44만여 명으로 남한 전체 인구의 3%를 차지하고 있는 풀이다. 특히 안동권씨는 한국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53개 성씨 가운데 안동권씨는 인구 수로 15위, 본관 성씨별로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본관 즉 관향(貫鄕)을 사용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이다.

권영준 박사가 강의한 '안동이 본관인 성씨'에 관한 보학강좌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안동권(權)씨를 비롯하여 안동김(金)씨, 안동장(張)씨, 안동손(孫)씨, 안동전(全)씨, 고려때 안동을 북주(福州)로 사용하던 북주전(陳)씨, 안동노(盧)씨, 안동박(朴)씨, 안동임(林)씨, 안동강(姜)씨, 안동문(文)씨, 안동조(趙)씨, 안동최(崔)씨, 안동고(高)씨 등 15개 성씨가 있고 음(邑) 면(面)의 8개 성씨를 포함하면 총 23개 성씨가 안동과 관

련이 있다. 안동권이 안동시로 통합되기 전 안동군 내의 8개 성씨는 풍산류(柳)씨, 풍산김(金)씨, 풍산홍(洪)씨, 풍산심(沈)씨, 예안(李)씨, 예안김(金)씨, 길안임(林)씨, 임하임(林)씨이다. 이들 23개 성씨가 사용하는 인구는 총 1백44만여 명으로 남한 전체 인구의 3%를 차지하고 있는 풀이다. 특히 안동권씨는 한국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53개 성씨 가운데 안동권씨는 인구 수로 15위, 본관 성씨별로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본관 즉 관향(貫鄕)을 사용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이다.

보학강좌가 끝나자 육회비빔밥을 비롯하여 소주, 맥주, 음료수, 문어, 수박, 오렌지, 과일, 떡 등 푸짐한 음식을 먹으면서 화기에 애한 분위기 속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이날 즉석에서 회장, 고문, 원로, 족친 등 20여명이 230여만 원의 성금을 냈으며 권영건 회장은 참석자 전원에게 고급양말 두 켤레를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보도부장 권영건>

2019년 종묘대제 봉행

권병선 회장 부자(父子) 제관으로 참가

2019년 종묘대제가 5월 5일 일요일 10시 서울 종로구 종묘에서 외국인 등 수많은 인파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봉행되었다.

오전 10시에는 영녕전에서 오후 13시에는 정전에서 각각 봉행되었다. 안동권씨 대종회에서는 영녕전 제6실에 모셔져 있는 현덕왕후 신위에 제례를 봉행하기 위해 해마다 이현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권병선 회장(왼쪽)

올해 춘향대제에는 권병선(權炳善, 35대) 추밀공파 왕좌공 종회 회장이 아현관 분정을 받았고 권회장의 장남 권성욱(權星旭, 36대)씨가 집사로 참여하였다.

종묘대제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서 왕이 직접 예법에 따라 지내는 엄숙한 제례로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국가적 행사였다. 종묘대제는 제례의식과 종묘제례악 및 일무(춤) 등으로 구성된 종합 예술이다.

살아있는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종묘대제는 2001년 5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국제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종묘대제와는 별도로 2019년 현릉(현덕왕후의 능) 제향은 6월 10일(월요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에서 열릴 예정이다. <편집국장 권행완>





세무법인 화인

대표세무사: 권혁창 (權赫昶) (010-3680-5057) 북야공파36대

업무내용

1. 세무업무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2. 세무업무 기장대리
3.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4. 재산세 관련 세무 상담 및 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5. 법인설립(창업), 기업합병 상담

<p><본사>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 02-2640-6569 근무세무사: 권혁창, 정부해</p>	<p><동부지점>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물 업무동 10층 15,16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 근무세무사: 정대성, 김병재</p>	<p><강원지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 Tel) 033-375-7768 근무세무사: 김인섭</p>
---	--	---

가 나 기 획

























대표 권혁준 02)741-7191~3 / 010-5281-7191

집안 어른들께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습니다.